

그리스도인과 현대사회문화

(D. Webster 저/ 나침판사/ 서울 3판 1992)

장진호

캐나다 온테리오 성경대학의 학생과장으로 있는 저자는 “우리 시대의 이교 문화가 조장해 온 기본적인 전제들과 습관들에 도전”하며, “성경의 빛 안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로써 우리의 문화를 읽고자”하는 것을 본서의 저술 목적으로 한다. 바로 현대 ‘서구’ 문화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것이 이 책의 저술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문화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관한 포괄적 개관이 본서에서 시도된다. 그러나 저자는 본서를 통해 해답이나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사고(思考)를 유도하려 한다는 점을 서문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이 책의 논의전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새로운 정신’으로 보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일반론적 정의를 내린다. 3장에서는 현대인과 현대의 정신구조를 규명하고 4장에서는

1세기의 로마문화로 되돌아가 본 후, 5장에서는 현대 기술문명, 6장에서는 대중매체, 7장에서는 물질주의에 대해서 살펴 보고,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인적으로 이해하려 하며, 9장은 가정에 대해 논하고, 10장은 선교에 대해서 살핀다. 마지막 11장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개혁을 촉구함으로써 이 책의 논의를 끝맺는다. 책의 두께에 비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라, 다소 논의가 ‘요약적’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깊은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본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장 ‘새로운 정신’에서는 주요 선진국가의 복음주의권 내 교회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 속에 있음을 확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1세기의 제자들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정신구조를 갖는 것임을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본서에서 문화적 논쟁점을 신학적, 역사적, 성경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임을 언급한다.

2장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문화는 무엇인가’에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 지적인 확신과 변화된 삶의 방식을 통한 고백과 답변이 모두 필요하며, 그리스도인의 활동무대인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문화」에 나타난 라차드 니버의 논의를 요약한다. 문화는 사회적, 인간창조적, 가치지향적, 다원적인 네 가지 특성을 갖는다. 예수께서는 문화와 대결하심으로써 지상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문화는 인간과 그의 모든 곤경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들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의 문화적 적대자들은 ‘첫째, 예수는 문화를 무시하였다. 둘째, 예수는 내세 지향적이었다. 셋째, 그리스도는 배타적이었다. 넷째, 예수께서 명령하신 삶의 양식은 삶의 의무들을 실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예수님을 비방하였다. 저자는 각각에 대해 해명한다. 그러나 저자는 오히려 예수와 문화의 부조화성을 부각시킨다. 그것은 문화를 형성하는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개선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새롭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다”

3장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에서는 사람의 문화적 범주를 초월하시고 전인

적 관계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라사 사람, 니고데모, 삭개오의 예를 통해 설명한 후, 현대인의 모습 및 사람들에 대한 접근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적 정신을 앨빈 토플러의 논의에 기반하여 규정한다. 현대인은 첫째, 진보적이다. 안정을 꾀하는 혁신과 불안정의 정서 속에 있다. 둘째, 동시대적이다. 미래와 과거보다는 현재와 즉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 행동규범을 거부한다. 셋째, 풍요롭다. 이것은 물질주의와 관련된다. 넷째, 계몽되었다. 이는 관용의 확산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복음의 필요를 못 느끼도록 자신들의 곤경을 ‘은폐’시키고, 복음을 시대적 문화와 ‘타협’시키며, 인간을 부품화시켜 인간관계를 탈인격화하는 ‘그릇된 영향’을 낳는 등 그리스도적이고 전인적인 만남을 어렵게 하는 현대의 정신구조를 형성한다.

4장 ‘다시 살펴 보는 로마문화’에서는 20세기 문화와 1세기 문화가 그리 다르지 않음을 말하며, 초기 그리스도인의 형편에 비추어 지금이 더욱 영향력을 낳기 힘들다고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불평들을 일축하려 한다. 진보, 풍요, 동시대성, 계몽정신은 1세기의 특성이기도 했던 것이다. 당시엔 다신론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를 분명히 제시해야 했으며, 혼합주의와 순용주의를 피해야 했다. “우리의 문화는 고린도인들 만큼 도덕성을 상실했고, 로마인들 만큼 쾌락을 사랑하며, 유대인들 만큼 종교성이 강하며, 아덴 사람들 만큼 지식적이고, 에베소인들 만큼 미신적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독특성의 실현과 그리스도의 명령의 수행은 1세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5장 ‘기술문명의 바벨탑’에서는 다시 오늘날의 문화에 눈을 돌린다. 특히 “과학시대”로 불리워지게 한 기술문명을 주목한다. 기술문명의 영향력은 현대인의 세계관까지도 규정하고 표현한다. 이를 저자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독립성 표현의 상징, 즉 바벨탑 정신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기술문명은 현대인 고유의 영적 상태를 표현한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이다.” 저자는 이러한 기술문명의 정신이 윤리를 옆으로 제쳐 놓았고, 기계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소외와 무

의미라는 현대적 정서를 낳았음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기술문명 자체의 문을 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을 언급한 후, 기술문명의 바벨탑 정신에 순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6장 ‘대중매체와 그리스도인’에서는 현대의 문화를 조작하고 반영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살핀다. 그것의 특징은 비인격적이고 행동지향적이고 대리 주체적이고 초도덕적이고 상업적이다. 따라서 그것은 면역으로 인한 무관심, 대화와 사고의 기피 등의 피상성, 공상적 안정, 도덕적인 선악관념의 마모, 자극에 익숙한 성격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첫째, 대중매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며, 둘째, 그것에 접하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하고, 셋째, 그것에 의해 조절되는 문화에 민감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방송, 특히 TV를 통한 복음전도의 현실을 돌아보고, 대중매체의 속성과 관련하여 복음의 왜곡 혹은 순치, 광고와 관련된 문제, 배금주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는 현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종교방송국 공약이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깊이 경청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공훈과, 조작이나 타협이 없었던 강력한 그분의 의사전달을 대중매체와 비교한다.

7장 ‘물질주의, 그 끝없는 갈망’에서 저자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 위기를 가져다 주는 물질주의라는 우상을 다룬다.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적 상황에 놓여짐을 말하고, 재산축적의 욕망을 경계시킨 후, 성경에 나타난 평균의 원리를 제시한다(행4:34, 고후8:13,14, 출16:18) “국민들이 정부 관리들에게 재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면, 교회가 그와 유사한 개방성을 나타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저자의 질문은 매우 아프게 들려온다.

8장 ‘우리가 줄 수 없는 대답들’에서 세상은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를 함께 충족시킬 수 없음을 보고, 신비주의나 사회복음도 온전히 못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는 성경의 예언자를 따라, 죄에 대한 기존의 편협한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의 죄를 모두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문화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그

리스도인은 복음의 독특성을 세상에 시위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역시 실천해야 한다. 여기서 저자는 로버트 슬러의 부(富)의 기독교를 강력히 비판한다. 정말 우리는 주일 아침 AFKN 텔레비전 방송에서 들려오는, 화려하게만 보이는 로버트 슬러 목사의 설교를 보다 분별력 있게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후에 저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긍휼, 섬김, 동기를 살핀다.

9장 '가정은 존속될 것인가?'에서는 아이들의 육분의 일 이상이 결혼가정에서 자라는 미국의 문제를 언급하며, 결혼과 가정의 붕괴, 동성연애의 확산, 낙태의 만연으로 드러나는 생명경시 풍조를 살펴 본다. 이러한 것들의 중요한 원인은 성경에 근거한 도덕적, 윤리적 확산의 광범위한 손상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혁명적인 가정'을 건설할 것이 요청된다. 시간을 들이고 훈련을 하여 서로 신뢰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건설해야 한다.

10장 '삶의 양식으로서의 선교'에서 저자는 선교 사명을 신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변명들을 공박하고, 복음전도를 위해 타인과의 동일시, 복음전도의 출발점 모색, 복음의 순수성 보존을 강조한다. 또한 복음은 '문화적 지역주의'와 분리되어야 한다.

11장 '새로운 개혁'에서 저자는 이상의 논의의 적용을 위해 다시 문화로 되돌아간다. 첫째, 문화란 정신의 문제이다. 둘째, 문화란 적응체계이다. 즉 문화는 죄가 침투한 환경을 스스로 극복(적용)하려는 인간의 시도이다. 셋째, 문화는 통합장소이다. 교회는 현 문화추세보다 한발짝 늦게 그것에 항복한다. '문화적 교회'는 적응체계에 순응할 뿐 결코 변혁시키지는 않는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문화적 수술로서의 개혁을 위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문화적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책의 결론을 맺는다.

책의 전체적 구성이 약간 산만하고, 장별 주제의 선택이 다소 자의적인 점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현대에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서구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의 그리스도교적 개혁과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통찰과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양한 문제들을 비교적 쉽게 포괄적으로 언급한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성경의 원리에 강조를 두는 저자의 모습이 돋보였다. 이 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논쟁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대적 고전인 존 스토틀(J. Stott)의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기독교문서선교회)의 일독을 권한다.

더글라스 웨스턴의 본서를 읽으며, 서평을 쓰는 필자로서는 이제 서구사회의 문화적 환경에서 쓰여진 이러한 책뿐만 아니라, ‘한국적 특수문화’를 보다 고려한 성경적, 복음적 조명과 개혁의 비전이 있는 서적의 등장을 기대하게 된다. 본서에서 논의된 문화적 상황은 물론 국제화라는 명분하에 서구화가 가열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현재 혹은 장래의 우리의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차이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동양종교적 문명 및 전통문화와 윤리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며, 현대 한국문화의 많은 모습이 ‘자생적’이기보다 ‘수입문화적’ 특성을 보이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순수 기독교와 문화적으로 서구화된 기독교-그들 자신도 인정하는 바-를 또한 구별하는 안목을 강조해야 한다. 웨스턴의 논의나 대천덕 신부의 노력에서도 보듯이,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독교의 서구화를 경계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서구화된 기독교의 ‘문화적’ 특징이 무분별하게 묵인 및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여타의 긍정적이지 않은 서구문화의 유입과 확산을 관용하게 되는 암묵적 기능(latent function)을 해은 사실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아름다운 문화로서, 성경적 가치를 현재적으로 재발견하여 국제적 기독교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토착화-혼합주의가 아닌-의 논의와 관련된다. 중국의 ‘예수가정’은 같은 동양권으로서 도전을 주는 바 있다.

이 밖에도 본서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각론의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소원이다. 우리는 각론에 비해 많은(?) 원론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물론 필요하나, 실천의 증언과 좀더 실제적인 각론 또한 균형있게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령 “기술문명의(기독교적) 변혁” “한국기독교와 물질주의” “한국

의 대중매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방송선교론” “가정의 반란—한국적 상황과 (기독교적)대안” “로버트 솔러에 대한 복음주의적 평가” 등이 될 것이다. 영국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한 평생을 보낸 루이스(C. S. Lewis)는 한 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기를 원한다면, 학교나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써 보라”고 한 적도 있다. 굳이 ‘기독교적임’을 겉으로 표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성경적 안목에 기반하여, 비기독교인 학생조차 그것으로 공부하고는 성경적 가치관의 총체적 우수성을 깨닫고, 보다 기독교에 친숙—많은 일반 교과서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거부하나,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특히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악의적 선전물의 구실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아픈 가슴으로 고려할 때—하게 되며, 바람직한 인식과 실천을 고무받게 할 수 있는 잘 쓰여진 ‘일반용’ 교과서가 많이 나와서, 대학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기독교적 대체교과서 운동’에 투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성경적 청사진 시리즈’라는 기획물 서적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 성구로 도배를 한 듯한 원칙론에 가깝고 좀더 실제적이지 못한 구석이 있다. 그렇다고 결코 천박한 실용주의를 격려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자가 마지막 장에서 언급한 대목의 하나가 숙고할 여지를 주었다. 그것은 문화와 사회의 기독교화가 영적인 변화의 필요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변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자 할 때, 그것이 안믿는 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낳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문화가 기독교화할 때, 사람들이 거듭날 필요를 못느낀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변혁을 위해 분투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적 삶과 개혁의 결실은 복음의 도전을 무감동한 이웃들에게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복음전도는 변혁지향적인 제자의 삶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읽는 이에 따라 본서는 다양한 영감과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문화에 대한 성경적 조망을 시도하려 하거나, 이것에 대한 일반적, 초보적 이해를 구하는 이들에게 본서는 더욱 유익하리라.